교육을바꾸는사람들·좋은교사운동·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주최 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모색

1~6차 연속토론회 자료집

교육을바꾸는사람들
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of Korea

'교육을바꾸는사람들-좋은교사운동-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주최 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모색

일 시 1차 2020. 9. 23.(수) 오후 7~9시 2차 2020. 10. 8.(목) 오후 7~9시
3차 2020. 10. 13.(화) 오후 7~9시 4차 2020. 10. 14.(수) 오후 7~9시
5차 2020. 10. 22.(목) 오후 7~9시 6차 2020. 10. 29.(목) 오후 7~9시

주 최 교육을바꾸는사람들-좋은교사운동-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주최

참여방법 유튜브에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검색, 채널에 입장하여 시청 및 댓글 참여

1차 토론회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던진 문제는 무엇인가?

- 일시: 2020. 9. 23. (수) 오후 7~9시
- 사회: 황형준(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팀장)
- 발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교육의 근본 문제와 대응 방안(김학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망하는 미래교육과 나아갈 방향(강태중)
- 토론
  김태균(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염영하(삼정중 교사)

2차 토론회 우리의 미래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일시: 2020. 10. 8.(목) 오후 7~9시
- 사회: 조난심(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 발제
  교육과정의 근본적 문제 성찰 및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이종태)
  세계 교육과정 개정 추세와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찬승)
  2015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차기 교육과정의 나아갈 방향(홍원표)
- 토론
  손민호(인하대 교수)
  진영효(전국도덕교사모임 교사)

3차 토론회 대학 입시경쟁은 완화될 수 없는가?

- 일시: 2020. 10. 13.(화) 오후 7~9시
- 사회: 이종태(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발제
  한국 대입 경쟁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해결 방향(김동춘)
  대학서열 완화 방안의 재검토(김명연)
- 토론
  남기곤(한밭대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최성수(연세대 교수)
  김학한(은평고 교사)

4차 토론회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0. 10. 14.(수) 오후 7~9시
- 사회: 이종태(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발제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홍순희)
  대입 관련 학생평가(내신/학종/수능) 개선방안(김영식)
  생활기록부가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 및 근본적 대안 모색(강태중)
- 토론
  노기원(상명고 교사)
  조현영(인하대 교수)

5차 토론회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와 학교문화 바꾸기

- 일시: 2020. 10. 22.(목) 오후 7~9시
- 사회: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발제
  새로운 교육 자치와 거버넌스 모색(한민호)
  학교 자치 강화와 학교문화 바꾸기(권재호)
- 토론
  이성(장곡고 교장)
  김용련(한국외국어대 교수)
  박대권(명지대 교수)

6차 토론회 심화되는 교육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일시: 2020. 10. 29.(목) 오후 7~9시
- 사회: 이종태(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발제
  구조화된 교육격차 및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격차의 요인 분석 및 대응책 모색(김위정)
  심화되는 학포자 증가와 교육 격차, 뇌과학적 교수·학습으로 대응하자(이찬승)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수/학습/지원 관련 문제점 분석과 대안 모색(정가희)
- 토론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이대식(경인교대 교수)

Contents

1차 토론회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던진 문제는 무엇인가?

발 제

-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 문제의 실상과 대처 방향** ····· 5
  (김학윤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 **학교교육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 23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 론

- **김학윤 선생과 강태중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 27
  (김태균 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고3, 중1, 초1이 아닌 '사람'을 살리자** ····· 33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위기가 가져다 준 기회** ····· 37
  (염영하 삼정중학교 교사)

Contents

2차 토론회

우리의 미래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발 제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 47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세계 교육과정 혁신 추세와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 61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단상 ····· 93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 토론 원고 ····· 113
  (손민호 인하대학교 교수)
- 우리의 교육과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123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교사)

Contents

3차 토론회

대학 입시경쟁은 완화될 수 없는가?

발 제

- 대학경쟁의 성격과 미래지향적 해결방안 ····· 141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권역별 대학연합 방안 ····· 147
  - 대학통합네트워크 형성 경로의 재검토 -
  (김명연 상지대학교 교수)

토 론

- 토론문 ····· 167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 토론문 ····· 171
  (최성수 연세대학교 교수)
-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평준화와 한국적 경로 ····· 179
  (김학한 은평고등학교 교사)

Contents

4차 토론회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발 제

-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 189
  (홍순희 서울위례별초등학교 교사)
- 대입 관련 학생평가(내신/학종/수능) 개선방안 ····· 201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생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 ····· 225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토 론

- 토론문 ····· 229
  (노기원 상명고등학교 교사)
-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 243
  - 교육의 질 제고, 실효성있는 정성평가 방안의 모색 -
  (조현영 인하대학교 교수)

Contents

5차 토론회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와 학교문화 바꾸기

발 제

- **새로운 학교자치와 거버넌스** ····· 251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 **학교자치 강화와 학교문화** ····· 261
  (권재호 선사고등학교 교장)

토 론

- **공동체가 존재해야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 277
  (이성 장곡고등학교 교장)
- **"새로운 교육 자치와 거버넌스 모색" 토론문** ····· 287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291
  (박대권 명지대학교 교수)

Contents

6차 토론회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발 제

- 교육격차 요인과 대응과제 ····· 297
  - 코로나19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학습부진, 학습과학에서 해결책을 찾다 ····· 319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 교육, 사각지대 안의 학생들이 너무 많다 ····· 377
  (정가희 인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토 론

- 출발선에서부터 목표점까지 개입되는 부모의 경제력 소거해야... ····· 393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토론: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397
  - 학력이 낮은 학생을 수업 시간에 '수고로이' 고려하고 있는가? -
  (이대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을바꾸는사람들-좋은교사운동-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주최

토론회(1차)

○ 일시: 2020. 9.23.(수) 오후7시~9시

○ 주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던진 문제는 무엇인가?

○ 방식: 온라인 토론회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좋은교사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실시간 중계

○ 진행

구분	내 용
개회	- 개회(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팀장 황형준)
인사말씀	- 개회사 겸 인사말씀(동영상 상영)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	-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 문제의 실상과 대처 방향 (김학윤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 학교교육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발표	- 김학윤 선생과 강태중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김태균 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고3, 중1, 초1이 아닌 ‘사람’을 살리자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위기가 가져다 준 기회 (염영하 삼정중학교 교사)
토론	- 토론 - 의견 제안 및 질의응답
폐회	- 폐회(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팀장 황형준)

1차 토론회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던진 문제는 무엇인가?

발 제

-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 문제의 실상과 대처 방향

  (김학윤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 학교교육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 문제의 실상과 대처 방향

김 학 윤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내 용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교육의 실상
1) 온라인 수업이나 블렌디드 수업의 전면화
2) 평온한 일상, 학생의 고통이나 미래에 침묵, 무시, 외면
2. 실체를 정확히 보자
1)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
2) 코로나19는 교육 부문의 총체적인 위기

Ⅱ. 코로나19 위기 속의 교육 문제의 본질과 해결 과제
1. 코로나19 사태의 원격 수업 보편화가 가져온 교육 문제
1) 교육 공백이나 미발달 우려
2) 교육 격차와 불평등 심화 우려
3) 건강과 보건 관련 문제
4) 정보의 독점과 악용 가능성
2. 획일적인 입시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 지속
1)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고통 외면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실종
2)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

Ⅲ. 코로나19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기존 노력 평가
1. 교육부, 교육청의 노력
1) 온라인 교육,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 만들기 정책의 의의와 한계
2) 자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정 노력
3) 교원양성체제 개혁 노력
2.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의 노력 평가
1) 위기 극복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 노력
2) 교육 자치나 학교 자치의 한계 노출

Ⅳ.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중·단기 대책
1. 코로나19 교육위기에 대한 대안(단기적 해결 방향)
1) 새로운 교육 공백, 발달 지체, 편파적 교육에 대한 대책 필요
2) 입시 관련 교육 격차 및 불평등 시정 대책
3)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역할 분담 필요, 팬데믹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재조정 필요
2. 중장기적인 해결 과제와 방향
1) 공고한 입시 경쟁 교육의 틀, 입시 경쟁 교육의 근본적인 타파 노력
2) 새로운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 주체 중심의 학교 개혁
3) 과학 및 정보 관련 기술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Ⅴ. 나오며

Ⅰ. 들어가는 말

1.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교육의 실상

1) 온라인 수업이나 블렌디드 수업의 전면화

1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다.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수업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다. 1학기 개학도 늦었지만, 개학 이후 지금까지 등교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의 학교가 1/3만 등교(고3이 전면 등교함에 따라 고교는 두 개 학년이 등교)했다. 2학기 들어와서도 다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혼자서 수업받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생활도 옛날과 같지 않다. 등교하기 위해서는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업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놀이도 식사(급식)도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도 달라졌다. 대부분 단축수업, 30~40분(중학교는 45분 수업이 길어야 40분, 고교의 50분 수업은 40분 정도)으로 줄어들었다. 수업뿐만이 아니다. 각종 학교 행사가 축소되었고, 단체 활동도 개별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만 하는 상황이다. 비교과 활동이라는 창의 체험 활동, 즉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등도 생략되거나 최소화되고 있다.

2) 평온한 일상, 학생의 고통이나 미래에 침묵, 무시, 외면

그럼에도 학교는 학사 일정도 계획된 대로 운영되고 수업 일수도 맞추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입시도 아직까지 며칠 미룬 것 말고는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평가원 주최의 모의 수능이나 교육청 주관의 학력고사도 예전처럼 치러진 바 있다.

겉만 보면 온라인 수업 참가율도 더 높고, 학생 사안도 줄어들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오히려 수업 참가율은 등교 수업 때보다도 더 좋은 편이다. 내 수업의 경우 수강자가 평균 221명인데 220명이 수강한 정도이다. 등교 수업 때에는 2학년의 경우 한 반 30명 중 2~3명, 3학년의 경우 5~6명 정도가 빠져서, 그 비율로 치면 221명 수강자 중 30~40명 정도가 빠지는 것이 예상되는데 말이다.

게다가 원격수업이 보편화된 이후 생활지도 관련 학생 사안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컨대 지난해까지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학생부의 학교 폭력 담당이었는데, 올해는 그 곳이 우스갯소리로 '날로 먹는 자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 우리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가,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사회로 배출돼도 되는가? 겉으로 평온하게 보이는 학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되는가? 교육 부문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위기고, 또 학생들이 졸업 후에 당장에 취업 벽에 갑갑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공교육 황폐화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상황과 그 이후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되는가?

2. 실체를 정확히 보자

1)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이 보이고, 또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방역이 최대 관심사이다 보니, 현재의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그간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K-모델을 창출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교육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심지어 '온라인 교육은 교육도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또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최신 장비를 갖추고, 학교 건물만 새롭게 짓는다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그럴 듯이 보여도 정상이 아닌 것이 있다. 교사, 학생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나 교사 및 학부모들이 제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자.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코로나19는 교육 부문의 총체적인 위기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고, 사회 전 측면의 위기라고 한다. 예컨대 세계 경제도 1930년대 세계 공황에 준하는 위기라고 하고, 우리 경제도 선방했다고 하지만 0.6%(최근 통계로는-1~2%)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부문의 문제, 즉 학생의 성장 발달의 측면, 정신적 측면에서도 지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교육도 사상 초유의 위기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이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과를 거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고, 미래 세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혹시 이로 인해 교육 공백, 교육 지체, 나아가 불평등 등이 어느 정도 심화되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코로나19 위기 속의 교육 문제의 본질과 해결 과제

1. 코로나19 사태의 원격 수업 보편화가 가져온 교육 문제

1) 교육 공백이나 미발달 우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고, 방역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라 하더라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상 대면 수업과 같을 수 없다. 쌍방향 수업이라면 어느 정도 대면 교육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총체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정보 매체가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만 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업 중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많아, 딴짓을 하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또한 격리 수업, 온라인 수업은 집단보다는 개인, 밀집보다는 분산, 협력보다는 개인적 자율을 강조하게 된다. 협력 수업, 조별 활동, 공동체 중시 교육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보 매체가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그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은 개인 중심의 교육이 힘을 받고, 공동체 중심의 협력 교육은 약화되고, 교사나 학생, 학생 상호 영향력은 더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교육이 확대될 경우 교육 공백이나 미발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낮은 단계에서 이런 교육 공백이나 미발달이 나타날 경우 상위 단계의 학습을 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나아가 이후의 사회생활에까지 연결된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미발달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이런 교육 공백과 미발달의 문제는 단지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사회성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속담 중에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부딪치고 어울리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이견을 조정하면서 포용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 간에도 서로 부딪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성이나 원만한 인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 생활지도 관련 사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좋게 볼 것만은 아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20년 전 IMF 사태를 넘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준하는 큰 위기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발달 지체, 그리고 편파적인 교육의 부작용이 시대적 교육 위기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IMF 사태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당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후 2005년부터인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갑자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소위 IMF 세대로 인한 당시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험이나 교육 공백

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IMF 사태를 경험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20~30세대의 정치의식(시민 의식)이 40~50세대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지적들도 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 아동기의 경험이나 교육 공백이 이후 평생을 지배한다면, 민주 시민의 양성이나 미래 세대의 웰빙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 교육 격차와 불평등 심화 우려

이러한 교육공백이나 경험 부족은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 심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의지가 강하고 지적 욕구가 많은 소수 학생들, 그리고 가정환경이 좋아 부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덜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교육 부실로 이어져 교육 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우려는 비단 현재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상징하는 AI로 대표되는 정보 매체 도입 확대에 따른 문제점일 수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 불평등과 같은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합리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다.

(참고)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마테효과]

우리나라에서도 고3 대상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전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예년과 비교해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은 모두 늘었지만, 중위권 학생은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홈스쿨링이 확산되자, 부유한 가정에서는 교사를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단지 코로나19 시대에 보편화된 온라인 교육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교육평론가 제프리 셀링고는 2014년 펴낸 〈무크 U: 온라인 교육의 중도 포기 이유〉에서 무크의 실제 성과를 점검했는데, 이에 따르면 학습 동기가 강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5%의 자발적 학습자에게만 효과적일 뿐 대다수의 학생들에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환경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자율권]과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런 선택권과 자율권이 그대로 교육의 효과나, 교육 불평등의 해소로 연결되지 않고, 다수 학생들의 교육 공백과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8월 11일 구본권 산업팀 선임기자 칼럼]

3) 건강과 보건 관련 문제

코로나19 위기 속의 교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 거론할 면은 건강 문제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 못지않게 건강이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위기 상황(방역과 수업 병행)으로 마스크나 소독제 등에 포함된 화학 약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건강 문제, 오랫동안 인터넷에 노출되고 접속하는 관계로 인터넷 중독 문제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메탄올 사용 금지함, 유엔인권이사회, 8월 24일자 MBC]

지금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급식 시간에 방역 차원에서 폴리에틸렌 계열의 가림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림막이라는 임시방편도 당장에 생활하기 불편하고,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 호르몬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뿐이다. 예컨대 석면과 같은 중금속이나 방사선과 같은 부작용은 20~30년 후에나 밝혀진 바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 대량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 마스크,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건강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정보 매체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컴퓨터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심각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중독 관련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매체 의존도가 더 높아졌고 접속 시간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화되었으면 심화되었지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그런 문제가 노출되거나 쟁점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보 매체 중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4) 정보의 독점과 악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 볼 문제는 정보의 독점과 악용 가능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정보 매체가 관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이나 동의와 관계없이 교사와 학생들은 온라인 매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그 플랫폼은 교사와 학생 간에 오간 수업 내용이나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금은 방역 상 어쩔 수 없다거나, 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등으로 EBS 학습방, 구글 등의 플랫폼에 무조건 가입하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집단이 학생과 교사들의 정보를 집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정보를 교사나 학생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 몇몇 교사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정보의 상업화 문제는 소위 '메가스터디'로 대표되는 입시 학원들이 학생들 개인 정보[성적]를 수집하고,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공교육을 가장한 영리 학원의 등장과 같은 문제와도 연결되어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대학 교육을 허용한 미국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예컨대 정보의 수집 및 독점, 활용이 자본과 결탁되어 교육이 이윤추구 대상이 되는 Mooc[온라인 대중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학의 등장과 교육의 상업화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다.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학교육의 대중화, 즉 교육받는 수십만의 학생들, 온라인 수업으로만 가능한 학과나 학문을 강조하지만, 학문의 왜곡, 교육의 상업화, 이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고등교육 부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부문에까지 전이되고 보편화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교육비의 공적 부담[무상교육화] 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과 같은 공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교육 기관이 등장할 때 공교육의 위상은 급격히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미 공교육은 학교의 학원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사회가 정보 독점이나 상업적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공교육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다.

2. 획일적인 입시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

1)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고통 외면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실종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을 닫고,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3만은 예외로 모두를 등교시키고 있다. 학사 일정의 많은 부문이 생략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입시 일정만은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학교 교육에서 아직까지도 입시를 방역 못지않게 중요하게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교실 환경 게시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교나 모든 교실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 어떤 학급이든지 고3 교실 환경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치하는 것은 입시 관련 정보이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시관련 내용[주요 대학의 입시 요강, 성적에 따른 대학 및 학과 배치도 등]이 전체의 2/3~3/4을 차지하고, 다른 부문, 예컨대, 코로나19 방역 및 생활수칙[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이나 기존의 학교생활 수칙[학교생활 지도 규정, 도서관 이용 규정, Wee 센터 활동 규정 등]을 모두 합쳐도 1/3이 안 되는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입시 교육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것만이 아니다.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획일적인 입시 경쟁 교육, 국가 중심의 비민주적 교육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보다 입시 경쟁 교육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겪는 직접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입시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이나 미래 교육

의제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상투적인 것 같지만 수능 중심의 입시 경쟁 체제,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관료 중심의 권위적인 학교 문화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

지금 학생들은 과거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분출되고,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실업 사회로 그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 격감과 학령인구 축소, 정보 기술 발달[소위 AI 시대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명명된 상황]을 거론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단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이며, 성장 중심주의의 한계이며, 그리고 오늘날 교육 문제는 그런 근대 문명의 틀에 기반을 둔 학교 체제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 있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코로나19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기존 노력 평가

1. 교육부, 교육청의 노력

1) 온라인 교육,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 만들기 정책의 의의와 한계

교육부와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최신 정보기자재도 도입하고 전 교실에서 Wifi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준 바 있다. 게다가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하여,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엔 교육 부문을 포함하여 그린 뉴딜이라는 야심찬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최신 정보기자재 도입이나 정보 통신망 확충,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학교나 건물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즉 교육 본질이나 효과보다 정보지상주의에 입각하여 환경 개선이나 수업 방법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공백이나 미발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의 재편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의 교사 증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상의 교사의 역할 재조정 등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2) 자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정 노력

현재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는 2000년 이후 디지털 자동화(소위 제4차 산업혁명, AI시대, 정보 매체 시대) 흐름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가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 삶의 맥락을 고려하는 "학습자의 삶" 중심 교육, 역량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방향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의 조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결국 개인의 자율, 선택권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2015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선택중심의 교육과정(고교학점제)까지도 합리화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 즉 급속한 산업화 상황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반공이나 성장,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굳어진 강건한 관료주의 체제 및 그 속에서 겉돌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이나 문제의식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수 학생들이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올바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목표로 하는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지식 중심, 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하는데, 지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역량,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역량이라는 것이 가능한 얘긴가?

또한 정부는 교육 자치, 학교 자치를 강화하여 국가중심주의를 탈피하고 현장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교육 자치이고 학교 자치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 입시 경쟁 교육의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강조되는 학교 자치나 자율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협력(민주 시민성)보다 개인의 목표 달성이나 경쟁 교육에서의 효율성 추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원양성체제 개혁 노력

또한 현 정부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교원 양성 체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인재(5%이내)이지만, 교사로서의 효능감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원들이 현장에서 겉돌게 되는 원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대책 없이 교원 양성 체제 개혁이나 교원 역량 향상만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교육 실패의 원인을 학생이나 교사 탓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로 문제의 원인을 교사 요인에서 찾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려면 교사에게 교육활동의 재량권, 즉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권, 평가권 등을 보장하고, 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추진하는 교원 개혁은 쉽게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정부는 특정한 분야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통합 융합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교육과정,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교사, 학생 재량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세분화 시켜 놓고, 학생들에게 특정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교사들에게는 통합, 융합하는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학생 개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고,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과 교사의 역할 강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학생 개인이나 교사에게 전가하고, 교육 불평등을 합리화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물론, 인구절벽,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학생 수 감축 = 교사의 감축'이라는 단순한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나 질 높은 미래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교육 정책, 교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의 노력 평가

1) 위기 극복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 노력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방역과 수업을 병행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나마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보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 교사와 기존 관행에 길들여진 나이든 교사가 협력하여 온라인 수업을 잘 진행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 여건을 갖추었고, 많은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이 조회, 수업, 토론, 종례 등을 쌍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 학습공동체가 구성된 학교, 비교적 성공적인 혁신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수업 및 학교 운영 부분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며, 비교적 큰 문제없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부담은 대폭 늘어났지만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학교가 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학교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관리하는 몫이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었다.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많아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교육 업무가 학부모에게 많이 전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학부모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주체들의 노력,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학부모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분담하려는 노력은 미래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한다면 아마 교사 및 학부모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교육 자치나 학교 자치의 한계 노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자치, 학교 자치 확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방역 차원이나 기존에 확정된 예산의 불용 부문 처리에 있어서 학교의 재량권이 늘어났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학교 자치나 자율성 행사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의 재량권은 공고한 국가 중심 체제 및 공고한 국가 교육과정 틀 내에서 행사할 뿐이지,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혹은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와 구분되는 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학교 현장은 교장 중심의 공고한 관료체제 하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상부의 지침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방역 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옛날보다 더 형식적, 파행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Ⅳ.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중·단기 대책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는 개인의 성장 발달이나 잠재력 계발 또는 민주 시민의 양성보다도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교육, 경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입시 교육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고통이나 좌절에 무관심하고, 또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학생들을 양산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개혁의 방향은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1. 코로나19 교육위기에 대한 대안(단기적 해결 방향)

1) 새로운 교육 공백, 발달 지체, 편파적 교육에 대한 대책 필요

① 가능한 한 정상적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부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 공백과 미발달의 우려이다. 신체도 제 때에 적당한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이후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겪듯이, 교육도 제 때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을 위해 교육을 2차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다음에

보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을 닫는다거나 격리 수업을 너무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업의 불가능함을 내세워 수업 일수나 교육 활동을 축소하자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를 수용하여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에 따르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주장은 코로나19 하의 교육 공백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의무 교육 개시 시점을 앞당기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는 기존의 노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교육 축소, 수업 축소가 아니라 가능한 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방역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도 방역과 수업을 병행하면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기자재나 정보통신망도 구축해 놓았다. 하지만 지금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런 하드웨어보다도 활용 기술이나 교육 콘텐츠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일 수 있다.

②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증원의 중요성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축소된 교육 부문, 또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등교 시차를 조절하거나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 간의 접촉 시간이나 만남의 기회를 조절함으로써 교육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거나 교사 정원을 늘린다거나 교육 활동 관련 인력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인력 지원이나 교육 여건 개선은 방역 요원 지원이나, 정보 관련 기자재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머물고 있어,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과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이런 교육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나 재정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큰 방향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교육 부문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치명적이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제 부문에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말을 하고, 그 바탕에서 평소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추경도 편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재난지원금도 지급했다. 이렇게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고 국채 발행까지도 검토한다면,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그런 발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삶이나 미래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부문도 경제 부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에겐 경제 문제보다 어쩌면 교육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문제를 더 중시하는 사람은 경제적 대책 못지않게 교육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2) 입시 관련 교육 격차 및 불평등 시정 대책

① 입시 공정성 보완 노력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입시 제도로 전형을 시행할 경우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입시 관련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수능 중심의 정시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 바 있다.

물론 평가원은 지난 6월에 실시한 모의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입시 부문의 불평등 문제는 단지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재학생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신, 수능, 학종(학교생활기록부), 논술 고사 등 전형 요소 중에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수능 중심 전형의 경우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겐 불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이 학생이 처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에 따른 불평등을 보정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학종 및 수능 중심의 입시 축소, 내신 중심의 입시

물론 이번 입시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3학년 1학기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내렸고, 각 대학들이 논술 고사 등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종의 문제가 단지 3학년 학생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활동도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능한 한 학종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수능 부분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수능의 비중도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입시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락을 위해 변별력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상대 평가에 기반을 둔 내신 중심의 전형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③ 수능 등급 격차 완화

그리고 어떤 전형 요소를 중시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수능, 내신의 등급 격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 능력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한 학업 격차를 대학 입시 부문에서 개인의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으로 수능 등급제 완화, 예컨대 현행 수능 9등급제를 상·중·하라던가, 5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문적으로 수능을

치르지 못한 학생이나 학교 및 특정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수능 등급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능은 특성상 전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대에 치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수능과 입시를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랜B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한 전체 수험생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대체 등급을 부여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 경우 불가피하게 몇몇 수능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체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같이 수능 등급제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능 9등급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 및 수능 체제 및 3년 예고제를 전제로 하는 안이며, 지금은 현재의 입시제도 및 수능 체제의 존폐까지도 재검토할 시점이다.

(참고) 2020년 8월 24일 연합뉴스, 25일 한겨레 기사.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고교 졸업반 30여만 명이 코로나19로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A-레벨 시험을 치르지 못해, 기존 데이터에 의존해 AI로 적합한 학점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I가 준 학점은 가난한 학생을 차별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정식 시험을 치르지 못한 탓에 알고리즘에 의해 학점을 부여받은 영국 학생들을 살펴보면, AI가 평소 교육환경이 좋은 부유한 학생들에겐 좋은 학점을 준 반면,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가난한 학생들에겐 낮은 학점을 주어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④ 대학 서열화 타파 등 교육 경쟁 완화 방안 재추진

물론 대학 서열화나 성적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또 현행 입시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바탕에서 변별력과 관련시켜 해결책을 구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기에, 대학 입학 자격고사제나 대학 서열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방향에서 입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입 경쟁 완화 방안이나, 대학 서열 해소, 더 나아가 직업 서열이나 노동 차별 해소 방안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만 미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에 '대학 국공립대 통합과 대학 연합체제 구축', 그리고 '공영형사립대 추진'을 담았고,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교육부의 추진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책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단위에서 고려되지도 않고 아예 실종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역할 분담 필요, 팬데믹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재조정 필요

①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역할 분담에 따른 교육과정 재조정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한 학기를 넘어 두 학기째에 들어섰고, 아무리 빨리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간다고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흔히 비정상적인 상황도 3개월 이상이면 정상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1~2년이 넘어가는 것이라면,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어정쩡한 교육이 아니라 현 시기에 맞는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온라인 교육, 블렌디드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로 기존 교육과정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데 현 시기 학생들에게 맞는 최선의 교육을 위해서도 당연히 교육과정 재조정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나 더 유리한 교육과 내용, 그리고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더 보완해야 할 교육이나 내용을 가려 블렌디드 수업에 따른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교육과정 역할 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보편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사회성 형성 교육이나 개개 학생들의 특수성을 살리는 인성 교육 등은 대면 교육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학교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촘촘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입시 교육에 대한 압력, 평가에 대한 공정성 등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문의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개별 교사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2. 중장기적인 해결 과제와 방향

1) 공고한 입시 경쟁 교육의 틀, 입시 경쟁 교육의 근본적인 타파 노력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것이 입시 경쟁 교육이고, 입시 경쟁의 문제는 교육 부문에서는 성 문제와 관련된 Me too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세금으로 공교육비를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교육비 문제로 허덕이고 있고, 또 수많은 교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 섬 게임, 성장 발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무의미한 입시 경쟁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교육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그 어떤 교육개혁안도 공허하고, 무모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 체제와 교육 시스템을 언제까지 놔둘 수 없다. 그리고 인정한 바탕에서 적절히 현실과 타협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어쩌면 그런 어정쩡한 타협 방안이 입시 경쟁 교육을 지속시키며, 학생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을 되풀이 시켜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경쟁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 예컨대 대학 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대학 연합 체제(국공립대통합안, 지역연합대학안, 공영형사립대 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의 이런 정책들은 완성되지 못했던, 여건이 안 되었던, 의지가 부족했던 간에 어떤 이유로든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런 정책들의 실패 원인을 성찰하고 올바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입시 경쟁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입시 경쟁은 단지 교육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 경쟁, 노동이나 사회적 차별이나 권력의 불평등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이외의 부문에서 차별이 철폐됨으로서 입시 경쟁 교육이 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책이나 차별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사회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다.

2) 새로운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 주체 중심의 학교 개혁

기존의 교육과정은 성장 발달을 위한 인재 양성, 국가 안보나 경쟁력 향상에 바탕을 둔 국가 중심주의, 세계화 정보화의 추진에 따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공존보다는 치열한 자본주의 벼랑 끝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데 초점을 둔 교육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형태로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교육이 그 틀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또 그런 교육관이 지금까지 어느 특정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켰을지도 모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계가 크게 노출되었고, 극복해야 할 적폐가 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과정 방향은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대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성장 중심주의나 경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 생태, 환경, 평화 등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었으면 한다.

또한 교육 개혁을 위해 주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의 학생 및 교사나 학부모들이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 주체로 세울지 못할 때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그럴듯한 교육 개혁안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찾아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 과학 및 정보 관련 기술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앞으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특히 AI,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가상현실이나 증강 현실의 기술이 보편화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과학 기술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활용하거나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거나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인류에게 축복이며, 평등하고 공영 공존하는 사회 건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과학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즉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로 플랫폼에 가입하게 되므로 학생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보화, 온라인 수업의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한때는 교육 부문에 정보 인권 문제[흔히 NEIS 사태]가 뜨거운 쟁점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후 안타깝게도 교육 정보의 집적 및 활용 부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정보 활용이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이제 그러한 관심사에서 더 발전하여 정보의 공유와 공적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공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Ⅴ. 나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놓인 지금의 학생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일지 모른다. 기존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입시 경쟁 교육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저성장 시대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인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도 더 후퇴하고 있어 그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등 미래 직업적 전망도 암울하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문제, 그 속에서 고통 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현재의 학생들과 미래 세대의 문제인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이 직접 고통 받고 있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현재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또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교육은 전근대적인 성장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입시 경쟁 교육이고, 사회의 다양한 계급이나 계층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국가 중심의 교육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은 이러한 과거 교육의 틀을 탈피하고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서로 공존 공영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이 우려스럽다. 그나마 정권 초기에 있었던 교육 민주화와 교육 공공성의 정책 기조는 힘을 잃고, 대신에 소비자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들

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고교학점제까지 합리화하려는 선택형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교육 자치, 학교 자치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이런 정책들은 정부의 이름이나 정책 추진자 이름을 빼고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이주호 장관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교육 기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교육 민주화의 탈을 쓴 학교 자율화 정책이고, 경쟁 교육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구시대적 틀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 아니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 교육과 관료주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상황인데, 더 이상 후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입시 경쟁 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체제, 입시 경쟁을 당연시하고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 확립, 타인과의 소통, 협력, 공존할 수 있는 민주 시민성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를 모색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육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 체제 개혁과 함께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이제는 교육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교육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강 태 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필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MEMO

1차 토론회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던진 문제는 무엇인가?

토 론

- 김학윤 선생과 강태중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김태균 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고3, 중1, 초1이 아닌 '사람'을 살리자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위기가 가져다 준 기회

  (염영하 삼정중학교 교사)

김학윤 선생과 강태중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김 태 균 (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본 글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과 '좋은교사운동'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공동토론회(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모색) 중 1차 토론회 발제에 대한 토론이다.

1차 토론회 발제에는 김학윤 선생의 '코로나19 시대 학교 교육 문제의 실상과 대처 방향'과 강태중 교수의 '학교 교육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등 두 개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글의 구성은 두 분의 의견에 대해 간단한 필자의 졸견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불리는 당면한 교육 정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공)교육에 대한 운동 진영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교육운동의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두 분 발제에 대한 의견 제시가 쉽지만은 않았다. 더불어 당면 교육 정세에 대한 본질과 함께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본인에게 부담되는 과제였음을 솔직히 밝힌다. 그럼에도 본 글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 현장의 치열한 고민과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학습의 기회가 되었고, 본인에게도 반성의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학윤 선생의 발제에 대한 간단한 토론

우선, 김학윤 선생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학교)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학윤 선생의 발제 기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 다만, 본 글이 토론의 성격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 가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한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19는 교육 부문의 총체적인 위기'라는 김학윤 선생의 의견에 대한 이견이다.

코로나19는 교육 부문의 총체적인 위기가 아니라 대면강의, 집단 교육 등 '공교육 체계'에 대한 위기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김학윤 선생이 지적하듯이 '교육 부문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대면 수업, 집단 수업 등으로 표현되는 '(공)교육' 시스템 또는 형식에 대

한 문제이다. 그것도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육성하고, 경쟁과 대립을 강요하는 '(공)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이를 형상화하는 '(공)교육'의 형식, 체계에 대한 영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교육의 형식과 체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셧 다운'으로 표현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김학윤 선생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부문의 총체적인 위기'는 '셧 다운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시스템(형식)의 위기'로 수정을 해야 할 듯 싶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교육 부문의 총체적 위기'라 진단하는 김학윤 선생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는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의 강화와 확대 등 교육과 의료 산업 등에서 국가의 개입 조건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일각의 긍정적 평가 또한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듯싶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의 원격 수업 보편이 가져온 새로운 교육 문제' 중 '주의력이나 학습 의지 없는 학생들의 교육 공백 우려'에 대한 의견이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교육의 변화를 김학윤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주의력이나 학습 의지 없는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공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철저하게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교육 시스템에서 '주의력이나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공백'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1등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초·중등교육의 현실은 '주의력이나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루저의 존재로부터 경쟁과 대립의 긍정성을 확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교육공백'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니고 확대 강화된 것도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는 무관하게 자본주의 경쟁과 대립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존재해 왔던 불편한 진실일 뿐이다.

김학윤 선생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비교 검토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강태중 교수의 발제에 대한 간단한 토론

우선 강태중 교수의 발제문을 통해 '미래사회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자동화·무인화라는 과학기술혁명과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강태중 교수는 미래 교육 '담론'의 네 가지 특징(1, 와해적, 2, '지식 버리기', 3, '학생중심', 4, '스마트')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강태중 교수의 발제문의 제목인 '학교 교육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에서 제시하는 인류 역사가 간극 없이 이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이 교육 부문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교육 담론(와해적)을 지적하는 사적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을 포함한 생산양식의 상부구조에 대한 사회적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 등 사회를 구성하는 상부구조는 당연하게도 그 하부토대(생산관계)로부터 규정 받는다. 여타의 상부구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공)교육은 자본주의 토대 즉 계급적 모순으로부터 한 치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과학적 역사관은 강태중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인류 역사가 간극 없이 이어진다는 엄연한 사실'과 연결되는 과학적 역사관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강태중 교수는 교육 담론 중 첫 번째 '와해적' 관련해서 인류역사가 간극 없이 이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근거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외 교육 담론의 특징인 '지식 버리기', '학생중심', '스마트'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공)교육이 동 떨어진 그 어떠한 것인 양 간주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견을 제시한다.

교육을 포함한 인류 역사가 각각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간극 없이 이어진다는 강태중 교수의 말을 옳다. 동시에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상부구조, 즉 국가나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 등은 그 해당 사회의 하부토대 즉 계급적 생산관계를 반영한다. 노예제 사회에는 노예국가와 법이 있고 봉건제 사회에는 봉건국가와 법이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 존재한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교육은 자본주의가 최초로 발달한 영국의 1800년대 공장법(Factory Ac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국, (공)교육은 그 사회(자본주의)의 하부토대로부터 결박되어 있기에 그 사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변화를 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하부토대와 상부구조의 결박의 정도는 경기의 순환구조(회복-활황-후퇴-침체)에 따라 다르며 결박의 정도는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 내려가는 후퇴기에 결박의 정도가 가장 세다.

교육 담론의 특징으로 강 교수를 통해 표현된 '1. 와해적, 2. 지식 버리기, 3. 학생중심,

4. 스마트'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물적 토대로부터 규정된 사회적 제 현상이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중 교수는 '교육담론'을 지적하면서도 (공)교육과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모색'에 대한 필자의 간단한 의견

우선 첫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모색'이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교육'의 사회적 포지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은 사회의 생산양식과 무관하고 동떨어진 구성체는 결코 아니다. 국가와 법·제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인 계급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공)교육' 또한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체이다. 특히 '(공)교육'은 국가와 법 그리고 관습·관행, 이데올로기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체 중 상부구조이다. 이러한 상부구조는 생산관계라 불리는 하부구조(사회적 토대)로부터 규정되며, 한국 사회의 본질을 현상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생산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와 동떨어진 '(공)교육'이란 허구적 표현일 뿐 결국 미래의 '(공)교육' 또는 새로운 '(공)교육'이란 미래의 한국사회 또는 새로운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지금의 한국 사회 '(공)교육'이 1) 한국 자본주의, 2) 경제위기, 3)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로부터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소유의 사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경제 질서로 작동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상부구조 중 하나인 '(공)교육'의 기능은 여타의 상부구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본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생산양식의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근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 침체라는 새로운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구조의 위기임과 동시에 부르주아의 위기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위기에서 부르주아지의 선택은 노동자를 향한 착취의 정도를 강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을 퇴출시키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대한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 즉 노동자 계급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은

곧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가 부르주아지의 위기임과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위기로 나타난다.

2019년 12월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게 '코로나19' 그 자체이기보다는 '셧 다운'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위기이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규정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한국 사회 '(공)교육'에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대립이라는 자본주의 모순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자동화·무인화라는 과학기술혁명의 적용과 민영화·자본화라 불리는 '(공)교육' 현장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은 비대면 수업이라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800년대 초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오류와 비과학적 실천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왔다.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에 대한 자본주의적 활용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산 노동을 죽이는 즉, 노동자의 해고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혁명의 성과가 전체 인류의 성과로 귀결되는 방안도 있다.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거부하며 기계 그 자체를 파괴하고자 했던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시간을 늘이는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나누기'가 가능한 전 인류의 과학기술 성과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공)교육' 현장은 셧다운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변화의 현장,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이 그대로 유지·확대·강화되면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활용되는 현장이다.
이제 (공)교육의 현장을 질병으로부터의 전 인류 방역의 현장으로, 부르주아 계급을 살리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살리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자본주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공격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제로서의 (공)교육의 혁신과 개혁의 기지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교육을 둘러싼 우리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실천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비대면 수업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거부하고 '학급당 학생 수 대폭 축소와 교육 공무원 대폭 증대'를 힘 있게 요구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공)교육의 민영화·자본화 등 신자유주의 (공)교육 정책을 거부하고 (공)교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전면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경쟁과 대립이 아닌 협동과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등교육(대학)까지의 전면 무상화와 함께 국공립 대학의 단일화(네트워크-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학입시 폐지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네 번째, '지식' 버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담론(강태중 교수 표현 중)이 아닌 '지식' 중심의 교육의 내용(질)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전체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두 분의 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민이 되어 왔던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본인이 학부모 운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공)교육의 변화는 (공)교육만의 변화가 아닌 사회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공)교육이 가지는 사회적 포지션을 근거로 한 운동의 전략 문제이다. 맞물려 전개해야 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혹은 (공)교육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회가 바뀌어야 (공)교육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전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고3, 중1, 초1이 아닌 '사람'을 살리자

이 윤 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여는 말

코로나19는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다. 관공서, 학교, 대중교통은 물론 사유 재산인 자영업까지 통제되는 상황이다. 올해 초만 해도 잠시 멈춤을 '호소'했었는데 지금은 호소가 아닌 강제 집행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꼼짝 않고 버티면서 모든 구성원의 피땀을 강요하고 피해를 외면하는 철옹성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떠넘긴 채 선심 쓰듯 말잔치만 뱉어내는 것이 행정이다.

1주, 한 달, 한 학기씩 기다리며 헤매는 모습만 지켜보다보니 올해가 석 달 남았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입시도, 교육도, 돌봄도.

이제는 더 이상 '긴급' 대책이어선 안 된다. 불확실한 희망에 기댄 '임시' 방편도 안 된다. '만약에'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 단기, 중장기의 플랜 A, B, C...를 세우고, 학교는 교육부, 교육청의 면피성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닌 학교 상황에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래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의견이다.

이론과 제도보다 '현재, 학생'을 중심에 두자

발제 2(강태중 교수 발제)에서 '미래교육을 과거와 분리된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해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에 동의한다. 하지만, 코딩, 인공지능 등의 미래 분야에 필요한 기술보다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덧붙이고 싶다. 이는 함께 병행되어야 할 영역이다. 철학과 관점은 인문학적 소양, 행동과 표현은 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존재했던 지금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중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며, 다양한 SNS 매체에 자신의 의견을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역량' 담론이나 무슨 '주의'를 떠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고 공교육에서 외면하더라도 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필수 요건인 것이다. 할 줄 모르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교육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학문의 체계 안에서 계열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학생 개인별 수준과 진로에 맞게 설계해 주는 플래너 역할을 교사가 담당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우려는 고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 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는 과목의 체계적인 수강이 진행되고 있을까?

끊임없이 지속돼 온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 교육은 여전히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는 공급자 중심 교육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소비자 마인드 식의 저급한 취급을 받는다. 수요자인 학부모(학생)의 수준이 낮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공급자의 선민의식은 아닐까. 교육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것이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과 지식은 담겨져 있지 않고 기능과 자격증 과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개선해가는 것이 옳다. 또한, 학생이 미숙하다면 과목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때부터 방법을 알려주고 선택 능력을 키워주면 될 것이다. 학교가 직업학원처럼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학교는 세속(사회나 현장)에 대해 닫혀 있어야 하고, 교과교육은 생활 교육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논리다.

단기적 대안은 인공호흡만큼 시급하다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대안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당국의 책무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급급해 학교에서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접촉하지 않은 전교생을 등교 금지 시킨다. 교사가 똑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학급 인원을 분산시켜 2부제를 실시하는 건 여전히 '검토 중'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조 인력 투입을 기다리는 동안 수업 시간을 대폭 줄여서라도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2부제 아닐까.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재학생, 가정환경 등 입시의 불평등 요소를 보정하고, 수능 축소 및 절대 평가는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라도 시행돼야 하며, 나아가 입시제도 철폐와 대학 서열화 폐지까지 이뤄져야 한다. '사람보다 입시가 중요한 나라'로 불리는 것을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구분해 사회성 형성, 인성 교육 등은 대면 교육으로 하는 방안 역시 시급하다. 또한, 학년별 발달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재조정도 필요하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초등 저학년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동의 건강이나 사이버 의존도 측면에서 심히 우려된다. 원격교육이 온라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초등 저학년의

경우 교육목표를 낮추고 수업 시수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교육과정의 조정과 함께 다양한 아날로그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수정이 아닌 '개혁'이어야 한다

차별과 서열이 없는 사회 개혁과 함께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이 시험 없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전국 어느 대학에서든 학점이 인정되는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위기가 개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원격으로 외국 대학의 학위 취득이 가능한데 한국 대학 입시가 중요할까.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할까. 수백만 원의 대학등록금을 투자하며 질 낮은 원격 수업을 들어야 할까.

공교육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EBS와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학교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 안에서 교사는 강사가 아닌 조력자,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가정에 떨어져 있는 학생, 학부모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무용 전화가 필요하면 모든 교사에게 일괄 지급해서라도 소통 채널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이 스마트 스쿨보다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시행 가능한 쌍방향 원격 교육이다.

학부모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모든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몇몇 학부모만을 초대하는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시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지난 주 서울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에서 '관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보자'고 실시한 설문조사(총 2,630건 응답) 중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가르치는 것은 EBS만 틀어놓으면서 시험은 어렵고, 학생부는 쓸 내용도 없는데 채워야 되고, 입시는 달라지지 않음", "대학의 서열화, 입시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함. 이번의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가 절실한 기회로, 학부모들은 교육제도 대변혁을 충분히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아이들이 진짜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온전한 교육이 무엇인지 이번 계기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이 시험과 진학을 위한 교육보다는 삶을 가치롭게 살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학교교육이 좀 바뀌면 좋겠다".

현행 제도에 맞춰 대안을 찾자는 의견들도 있지만, 교육 개혁에 대해 학부모들의 워딩이 달라졌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

맺는 말

코로나19 시대에 공교육,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공교육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들은 교과 지식 습득과 사회성 함양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지식은 세속과 분리된 것이 아닌,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 시대의 필수 요소인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다. 훈민정음의 역사와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유튜브에서 본 신조어가 칭찬인지 패드립인지를 아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더 필요할 것이다. 자칫하면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성 함양은 학교의 존재 이유다. 교과 지식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회성은 학교가 아니면 대체할 방법이 없다. 홈스쿨링의 결과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공감과 배려의 실습이 부족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원격 교육만으로 1년, 2년을 보내게 될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부분이다.

입시와 행정 기준 호칭인 고3, 중1, 초1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일 것이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대학 원서를 써야 해서 울먹이는 사람, 수업은 5분 만에 끝내고 게임만 하다가 사이버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 학교는 말을 하면 혼나는 곳이라고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서로 미루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생사를 오가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무엇이든 제발 "하자!"

위기가 가져다 준 기회

염 영 하 (삼정중학교 교사)

1차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 교육의 문제와 미래교육 전망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잇따른 6차까지의 토론회에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발제자의 원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의 생각들도 있어서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고교학점제)… 배움을 가치롭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인 education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 교육'이라 할 때 방점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에 있지요.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되, 학생의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학생 개개인의 스펙트럼(가정환경, 문화경제적인 환경, 학습 수준과 성향, 관심과 적성, 진로 등)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자라온 시간만큼 그 특성이 더 확연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대로 배우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다는 것을, 다수의 학생들은 졸업장을 손에 쥐기 위해 다만 시간을 죽이며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힘겹습니다. 그나마 학교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배울 필요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배움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이들의 무너진 마음만 할까요?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제대로 씨앗을 틔우고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학생들, 아니 자신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열등감과 좌절감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만 할까요? 공부에 진저리를 치며, 졸업 후에도 스스로 1년에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지 않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현실만큼 안타까울까요?

똑같은 지식과 학습 수준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마치 헤엄을 잘 치는 금붕어,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 하늘을 비상할 줄 아는 직박구리 모두에게 나무를 기어오르라고 하고 나무 잘 타기로 줄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겨집니다.

사회인으로서 소양이 되는 기본 지식은 가르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중학교까지의 교육으로도 충분합니다. 길게 잡아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배우게 하나요? 흥미도, 재능도, 진로도 각양각색인 학생들이, 호기심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것의 가치를 알고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비로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계획해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마저도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만났을 때 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보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겠지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차츰 보완해 나가겠다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상담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진로교사의 부족,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과를 개설할 교사 역량의 문제, 연구 시간 부족의 문제, 연구 시간을 확보한다 해도 한 교사가 개설할 수 있는 교과 수의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 증원이 필요해지는 문제, 해마다 바뀌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교사 증감 문제,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선택교과 수의 차이, 학교 간 교류 시 거리의 문제(특히 농어촌의 경우)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지금의 상대평가로는 수강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견되는 문제들을 안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교에서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반대했던 선생님들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는 고교학점제보다 훨씬 더 모호했지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한다는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는 경제적으로도, 심리· 정서적으로도, 가정환경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기를 쓰고 노력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학교붕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뭐든 해보자고 했을 때, 일부 선생님들이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왜 시작하려 하느냐고 했습니다. 효과는 미지수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

아 보였으니까요. 여러 차례의 토의 끝에 당시 학교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몇 분은 끝내 학교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를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것과 실제 실행 과정에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도 고민하고 토의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하고 극악스러웠던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해 가는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가져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핵심지식 교육과정에 역량 교육과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담아내야 합니다

많이 알게 하는 교육,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허덕였습니다. 다 다루자니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건너뛰자니 고등학교에서 힘들 것 같으니 말입니다. 중학교가 이러하니,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에서는 더 그렇겠지요. 듣고, 외우고, 외운 것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풀이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니, 생각하는 교육을 할 틈이 없습니다.

현재의 교과 내용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예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기술 시간에 건설기술, 토목기술에 대해 배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량이 제작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치교, 거더교, 라멘교, 트러스트교, 사장교, 현수교의 구조에 대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열심히 가르치는 교과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학생들 머리에 들어올까 싶었습니다. "이걸 왜 배워야 해요?"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5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던 지식인데요.

반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생태, 성, 통일, 인권,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특히 코비드-19로 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류의 생존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선수가 축구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지요. 공도 차보고, 동료와 호흡도 맞춰보고, 친선경기라도 뛰면서 실전감각을 익히고, 스포츠정신이라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성취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겠지요.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가치롭고, 어떤 사회가 그런 삶을 보장해 줄지”,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두 발 딛고 숨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삶을 통해서 연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삶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때에도 수많은 정책과 사회 현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적이거나 또는 집단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줄 앎’과 ‘살 줄 앎’을 펼칠 삶은 학교 안팎의 공간에서도,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 모두의 삶에서 가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삶이 가치롭고, 어떤 사회가 그런 삶을 보장해 줄지” “사회적 안목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성장과 발달,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 확립, 타인과의 소통·협력·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성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교과지식 체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내 삶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함께 토론하고, 직접 참여해 보아야 사회를 보는 균형잡힌 안목이 생기고, 소통·협력·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입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방대한 지식을 담은 국가교육과정과 ‘공정’ 논쟁이 끊이지 않는 입시 경쟁 제도는 코비드-19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학습의 질이 학교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양은 어떻게든 맞추겠지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생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어 우리가 불가침 영역처럼 떠받들어 온 입시 제도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입시 제도를 개편할 때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더욱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대하고 촘촘한 국가 교육과정을 핵심교육과정으로 축소하고, 세상과 공존하며 현재와 미래를 잘 살아내게 하는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주적인 학습공동체… 미래교육의 토대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개학이 결정되었을 즈음, 교사들의 청원이 돌았었습니다. 거기에서 눈에 띄었던 문구 중에는 “젊고 기계에 관심 많은 교사들은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나이드신 교사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움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사 개개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롯이 해내야 하는 과업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박했을까요. 저도 기계치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움을 덜 겪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기에 주눅 들지 않는 '수업 관점'을 학교 선생님들과 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민주적인 소통 문화가 안착된 상태에서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온라인학습TF를 조직하여 플랫폼을 검토하고, 연습하고, 선생님들께 연수한 뒤, 체계를 갖추어 온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공동체적 대응은 평소 관계가 좋은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교육과 수업, 학생들의 배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고 나누어온 학습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는 어느 훌륭한 교장이나 교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혁신학교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난 주 비대면 연수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지 5개월 남짓 지속된 지금도 여전히 외로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결석이 누적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 와중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여전히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처음 맞닥뜨린 지금이야말로, 경력이나 지위와 관계 없이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교육적 해결책을 찾고, 함께 실천하고 성찰해 나가는 민주적 학습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현재 공교육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학교자치, 교육자치, 나아가 미래교육을 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에듀테크…교육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정부는 학교 정보 환경 구축을 위해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수업 상황을 예견하여 추진해 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투자가 그나마 지금 코비드-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김 선생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의 본질이나 철학적 고민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수업방법 개선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겠습니다.

'AI를 활용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한 강교수님의 문제의식, 즉 암묵적 차원까지를 아우르는 교사의 역할을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기 어렵다면 실천적 모색을 통해 답을 만들어 갑시다.

혁신학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절감에서 현실과 지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 집단적으로, 실천적으로 방법을 찾아왔던 것처럼, 전향적이고 대안적인 모색을 함께 해나가길 희망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기 어렵다면, 그래서 결국 시작도 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실천적 모색을 하면서 답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면!